

- 주요 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 결과, 이전의 긍정적 시각이 다소 약화
 - 미국 리치몬드 연은 총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의 도전에 강하게 대응하지만 경제이익 보존도 중요
 - ECB 총재, 유로존은 스태그플레이션 회피 가능. 고물가의 장기화 가능성은 낮은 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협상 타결 기대 후퇴 등이 영향
 주가 하락[-0.6%], 달러화 약세[-0.6%], 금리 하락[-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 등으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와 유사한 이유 등으로 0.4%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ECB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7%, 0.9%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원인
 독일은 40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으로 1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10.8원, +0.5원) 포함, 한국 CDS 포함

주 가					환 율				
		3/30일	3/29일	전일대비			3/30일	3/29일	전일대비
주 가	미국	4,602.5	4,631.6	-0.63%	국채 금리 10y	미국	2.35%	2.39%	-5bp
	유럽	460.19	462.09	-0.41%		독일	0.65%	0.63%	1bp
	중국	3,266.6	3,203.9	1.96%	CDS 5y	한국	28bp	28bp	0bp
	일본	28,027	28,252	-0.80%		중국	59bp	59bp	0bp
	한국	2,746.7	2,741.1	0.21%	위험 지표	EMBI+	-	513	-
환 율	달러지수	97.83	98.40	-0.58%		VIX	19.33	18.90	2.28%
	유로화	1.1159	1.1086	0.66%		WTI유	107.82	104.24	3.43%
	엔화	121.83	122.88	0.86%	원자재	구리	475.1	471.7	0.72%
	위안화	6.3477	6.3642	0.26%		금	1,932.9	1,919.4	0.70%
	원화	1,209.6	1,219.8	0.8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 결과, 이전의 긍정적 시각이 다소 약화

- 러시아 크렘린궁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이 어떤 돌파구를 보여준 것은 아니며,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논평. 또한 러시아는 키이우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속
- 반면 러시아 협상단의 메딘스키 대표는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방안이 건설적이었으며, 양국 간 정상회담 개최의 기대 역시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번 평화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발언
- 우크라이나 외교부의 니코렌코 대변인은 자국의 주권이 회복된 이후에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의 지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발표. 이는 아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에너지와 기타 상품 수출에 대해 모두 루블화 결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이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대한 대응 강화를 의미. 페스코프 대변인은 해당 방안이 러시아와 상대 교역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리치몬드 연은 총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바킨 총재는 연준의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가계의 저축이 소비로 전환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 또한 대차대조표 축소 조치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
- 캔사스시티 연은 조지 총재는 수익률곡선 역전은 경계해야 할 신호이며, 이는 향후 대차대조표 축소 논의에서 고려해야하는 요인이라고 주장. 다만 2년과 10년물 국채수익률의 역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첨언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의 도전에 강하게 대응하지만 경제이익 보존도 중요

- 타이 대표는 중국의 정책으로 인한 영향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미국의 전략은 중국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표도 내포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이 중국의 변화를 기다리지는 않겠다고 부연

■ PIMCO, 미국 수익률곡선 역전이 경기침체 신호는 아닌 것으로 판단

- Erin Browne 펀드매니저는 여타 주요 중앙은행이 여전히 대규모 완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수익률곡선 역전이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적절한 신호는 아니라고 진단. 또한 수익률곡선 역전의 이유가 과거와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ECB 총재, 유로존은 스태그플레이션 회피 가능. 고물가의 장기화 가능성은 낮은 편

- 라가르드 총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단기적 측면에서 고물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 다만 이러한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유로존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

■ 독일, 가스 공급 관련 '조기 경계'를 선포.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을 대비

- 하벨 경제부 장관은 가스 긴급 계획의 초기 단계인 '조기 경계(early warning)'를 선포. 이에 따라 당국은 가스공급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으며, 사태 악화에 대비한 예방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

■ 독일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년 만에 최고치. 에너지 가격 급등 등에 기인

- 해당 물가는 전년동월비 7.6% 올라 전월(5.5%) 및 예상치(6.7%) 상회. 이번 결과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의 큰 폭 상승 등이 원인. VP Bank의 Thomas Gitzel은 ECB에게 금리인상 이외의 다른 선택은 없다고 발언

■ 중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 양국은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

- 중국의 왕이 장관과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은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가 불법적이며 비생산적이라고 평가. 왕이 장관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강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3/3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월 ADP 민간고용(만건): 45.5, 2월(47.5), 예상치(45)

■ 주요 경제 이벤트(3/3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월 개인소득 및 개인소비지출, 3월 시카고 제조업 PMI
- 미국 2월 근원 PCE 물가, 3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러시아의 루블화 결제 요구, 유동성 확보 효과는 점차 감소할 가능성 - WSI

(Putin's Scheme to Rally the Ruble Could Run Out of Gas)

- 러시아의 천연가스 대금 루블화 결제 요구 이후 루블화 가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 통상적으로 수출국은 통화가치 상승 시 환차익이 가능하나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은 변동성이 높아, 해당 효과는 제한적일 소지
- 루블화 가치는 결제 적용범위 확대가 아닌 러시아의 수출량 확대와 밀접하게 관련. 러시아의 이번 계획은 유럽 국가들과의 긴장 고조 및 유럽의 원자재 공급원 변경 유도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오히려 루블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 미국 은행의 수익성, 수익률곡선 역전에도 당분간 양호할 전망 - 블룸버그

(Banks Aren't Sweating a Yield Curve Inversion Yet)

- 최근 '19년 이후 처음으로 2년물과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역전. 장단기 금리 역전은 단기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금리를 대출 이자수익을 수취하는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 그럼에도 은행은 주가가 상승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관측
- 이는 은행이 대출상품의 증권화 등 과거와 다른 여러 수익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 과거에도 플레트닝 현상과 장기금리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던 시기에 은행 주가는 상승. 이를 고려한다면 은행 수익성이 단기간 내에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

■ 연준의 단기적 총수요 관리 통화정책,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 우려 - Financial Times

(What you thought you knew about interest rates and the market is wrong)

■ ECB·영란은행, 과도한 차입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경종 - 블룸버그

(The ECB and the BOE Issue a Joint Warning on Excessive Leverage)

■ 미국 바이든 정부의 부유세, 공정한 세 부담을 위해 중요 - Financial Times

(US wealth tax: Biden seeks deepest and most tightly stitched)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